

고개 들어요, 광주FC



광주FC 선수들이 지난 26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알 힐랄과의 8강전에서 실점을 기록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아침 8강 사우디 알 힐랄에 0-7 패...미안으로 끝난 '위대한 도전' 박태준·최경록 "높은 벽 실감" 김경민 "내 축구 인생 최고의 가보"

광주FC 선수들이 대패를 곱씹으면서 또 다른 영광의 순간을 꿈꾼다.

광주FC는 지난 26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알 힐랄과의 8강전에서 0-7 대패를 당했다.

전반 4분 만에 세르게이 밀리니치치의 헤더에 선제골을 내준 광주는 전반 8분 역습 상황에서 맞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서 땅을 쳤다. 끝까지 마무리를 마치고 날린 아사시의 슈팅이 야신 부부의 선방에 막힌 뒤 광주는 상대의 일방적인 공세에 시달렸다.

각오는 했던 경기다. '오일 머니'로 유럽에서 활약했던 선수들로 무장한 상대였고, 상대의 홈에서 치러진 경기였다.

그래도 기적의 질주를 해왔던 만큼 광주는 '강

적'과의 승부를 기다렸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끝까지 광주답게 물러서지 않고, 모든 걸 다 펼쳤다고 해도 선수들에게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축구 인생에 있을 수 없는 큰 실책이지만, 광주 선수들은 또 다른 성공을 위한 쓴 보약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경기가 끝난 뒤 "비참하다"며 입을 연 박태준은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큰 점수 차로 지서 죄송하고, 진짜 이게 벽이구나라고 느낀 것도 같다. 한편으로는 언제 이런 선수들과 뛰어볼까 감사하게 뛰었던 것 같다. 경기를 하면서 감탄만 많이 했던 것 같다. 감탄이 나왔다. 경험을 얻어가지 않을까 한다. 경기를 보면서 리뷰도 하고, 내가 경기한 것 상대방이 경기한 것 뭐가 다른지 차근차근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상대방이 잘해서 할 말이 없다. 후회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준비를 했고, 경기를 바라보고 모든 걸 준비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진 것은 어쩔 수 없다. 능력이 부족한 것은 키우고 하련 된다"며 "다시 능력을 키우고 또 도전하겠다. 열심히 하다가 보면 또 기회가 올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베테랑' 최경록에게도 또 다른 축구를 느낀 순간이었다.

경기 전날 승리를 위한 자신 있는 도전을 이야기했던 최경록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경기 전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부끄러울 정도의 경기력이었던 것 같다. 결과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느꼈다"며 "잘할 때나 못 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더 느꼈다. 많이 배운 하루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도 맞다. 상대한테 배울 점은 배우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다시 잘 올라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CLE 마지막 경기에서 가장 바빴던 골키퍼 김

경민도 실패로 배울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했다. 이날 김경민은 세 차례 연달아 이어진 슈팅을 막는 슈퍼 세이브도 선보였지만, 상대의 차원이 다른 슈팅에 축구 인생 가장 많은 실점도 했다. 알 힐랄 팬들이 응원용 비닐 봉지를 경기장 안으로 던지는 바람에 직접 이를 정리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김경민은 "그것도 팬들의 열정"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플레이를 했고 상대 팬들에게 박수도 보냈다.

김경민은 "선수는 경기장 안에서 보여줘야 한다. 내가 1골 2골 먹어본 것도 아니고 많은 실점을 했다. 이 경기가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축구하면서 가장 큰 가보 같다"며 "경기를 분석하면서 골먹는 장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선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돼서 기대가 된다. 감독님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다. 여기서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의 분노와 화,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운동장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과는 참담한 패배지만, 승리를 위해 물러서지 않은 승부를 했다는 점에 의미도 부여했다.

김경민은 "ACLE 가면서 우리가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부딪혔을 때, 다른 팀은 지키기 바빴지만, 우리는 도전적으로 했다. 이번 경기도 7실점 했지만 얻은 게 더 많다. 실점을 하면서도 수비 전략으로 하지 않았고 공격적으로 했다. 그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단지 실점을 많이 한 부분은 내가 부족해서니까 훈련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팀에 고참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꿈같은 ACLE 일정을 끝낸 김경민과 선수들은 또 다른 무대를 위해 5월 2일 울산전에 집중할 생각이다.

김경민은 "축구 선수에게는 1경기, 1경기가 소중하다. 5월 2일 울산 원정 가는 데 울산한테 최근 성적 안 좋다. 김판곤 감독님 부담하시고 나서 1부 2패다. 이번에 승리해서 팬분들께 ACLE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다. 꿈꾸면 이루어지듯이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김여울 기자 wool@

'이정효호' 놀라웠던 여정...도전은 계속된다

이 감독 "선수들 확신이 의문으로 바뀌지 않게 앞으로 나갈 것"

"작은 꿈에서 시작했다. 확신이 의문으로 바뀌지 않게 앞으로 나아가겠다"

광주FC의 위대한 여정이 8강에서 마무리됐다. 광주는 지난 26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전에서 알 힐랄(사우디)을 상대로 0-7 대패를 당했다.

'유령연합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쟁한 선수들이 포진한 알 힐랄은 5만 명에 가까운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광주에 쓴 패배를 안겼다.

경기를 앞두고 '모 아니면 도'를 이야기했던 이정효(사진) 감독은 7골 차 경기의 패배가 됐다. 상대의 공세에 속절없이 무너졌지만 광주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2023시즌 K리그 3위라는 구단 최고 순위를 장식하면서 ACLE 티켓을 거머쥔 광주는 처음 출전한 아시아 무대에서 연일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요코하마(일본)전 7-3 대승으로 스테이지 리그 일정을 시작했고, 3연승 질주도 했다. 16강 승부에서는 두 번의 만남에서 단 하나의 유효슈팅도 남기지 못했던 비셀 고베(일본)를 상대로 3골 차 뒤집기 승리를 거두며 기적 같은 8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와 함께 광주는 K리그 시도만 구단이 이루지 못했던 '8강꿈'을 이뤘다.

매 시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온 이정효 감독. 계란으로 바위를 깨면서 올라온 무대, 기대는 컸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도전 정신으로



'정효불'로 벽을 넘어 온 이정효 감독은 실패 앞에서 또 다른 도전을 이야기했다.

ACLE 긴 여정의 시작은 작은 꿈이었지만, 대패로 끝난 마지막 순간 이정효 감독은 더 큰 꿈을 꾸게 됐다.

이정효 감독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선수들이 어떤 작은 꿈에서 시작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까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이번 경기로 또 큰 벽에 부딪힌 것 같아서 우리 선수들이 또 확신에서 다시 의문으로 바뀌게 봐 조금 걱정은 된다. 내가 그 의문을 풀어

내야 할 숙제가 생긴 것 같다. 내가 선수들을 잘 이끌어 작은 의심이 들지 않도록 정말 잘했다고 앞으로 확신이 들 수 있게끔, 제가 더 다독여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아찔한 대패지만 이정효 감독은 광주답게 물러서지 않았다. 어려운 상대와의 대결, 최소 실점이 목표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 광주답게 라인을 내리지 않고 공세를 벌였다. 기적 같은 여정의 끝에서도 끝까지 광주답게 한계에 도전한 이정효 감독과 선수들에게 광주 팬들은 물론 많은 축구팬들의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다.

이정효 감독은 "지금 우리 광주FC는 그래도 많은 K리그 팬분들, 축구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처음에는 진짜 변방에서부터 작은 도시로 대중들에게 관심 밖이었는데 지금은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며 "광주FC를 알리고 광주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ACLE 여정의 성과를 이야기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광주와 광주 축구를 아시아에 알린 이정효 감독은 또 다른 응원을 기대했다. 시민구단의 한계를 넘어 광주의 축구 바람을 키우고 싶은 바람.

그는 "사우디에 오면서 과연 얼마만큼 더해 우리에게도 좋은 기업에서 후원을 해줄까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우습고 나서 하고 싶었는데 어렵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칭찬해 주시고 좋은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여정을 끝낸 소감을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김여울 기자 wool@

힘겹다...김도영 오니 나성범 이탈

종아리 근육 손상 2주 후 재검
KIA, LG에 3-2 '위닝시리즈'
최형우 399홈런·볼펜진 완벽

'해결사'가 돌아오자 '주장'이 이탈했다. KIA 타이거즈에 또 다른 부상 선수가 발생했다. '주장' 나성범이 오른쪽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 27일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나성범은 전날 LG와의 경기에서 타격 후 1루로 달리다가 오른쪽 종아리 통증을 호소했다. 경기 후 병원에서 MRI 검진을 받은 나성범은 우측 종아리 근육 손상 소견을 받았다.

2주 후 재검진을 받은 뒤 정확한 상태와 복귀 시점 등이 확인될 전망이다.

'타선 완전체'로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려던 KIA 입장에서 악몽 같은 소식이다.

KIA는 시즌 시작과 함께 야수진의 줄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개막전에서 김도영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박찬호와 김선빈이 각각 무릎 부상과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 재활조가 됐다. 김선빈은 부상 복귀전에서 상대 수비수와 충돌해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부상도 당했다.

우여곡절 박찬호를 시작으로 김선빈이 돌아왔고, 기다렸던 김도영도 지난 25일 1군으로 복귀했다.

27일 경기에서는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지만 김도영은 복귀 첫날 대타로 나와 LG를 상대로 적시타를 날렸다. 26일에는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김도영이 가세한 KIA는 1위 LG와의 주말 시리즈에서 2승 1패를 기록, 위닝시리즈에 성공했다.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 2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4회말 홈런을 터트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상승세를 타야 하는 시점에서 다시 또 부상이 나왔지만 일단 반등에 성공한 KIA는 29일부터 NC를 상대로 홈에서 연승 잇기에 나선다. 이번 경기는 당초 원정 경기로 편성됐지만 창원 NC파크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 안전 조치 시행으로 일정을 바꿔 홈에서 진행된다. 대신 KIA는 8월 8일부터 NC원정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